

# 시인의 자질 갖춘 화가의 상상력

## 보들레르가 읽은 들라크로아의 작품세계

‘문둥이끼리는 얼굴만 봐도 반갑다’고 문둥이 시인 한하운씨는 울음을 참아내며 노래한 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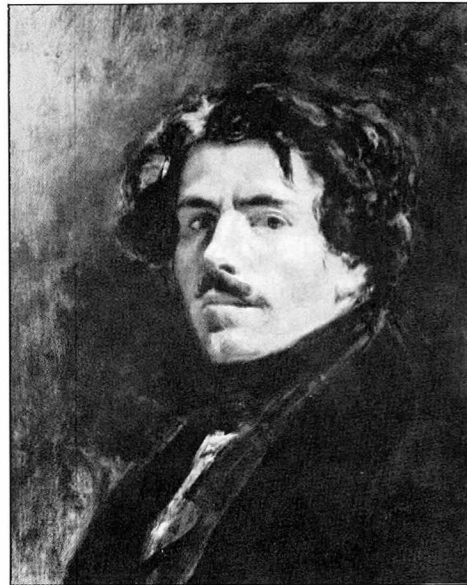
근대회화, 곧 낭만파 회화의 ‘바로르’이자 거두인 들라크로아(1798~1863)도 화폭 위에 ‘꽃보다 붉은 울음’을 토해냈다는 이유로 형극의 길을 가야만 했다. 그의 초기 대표작 <키오스섬의 학살>(1824)은 평론가들로부터 ‘회화의 학살’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때는 문명사적 대격변기였던 19세기초. 문화사적으로 고전주의 시대가 종언을 고하고 인간의 개성과 감성을 폭죽처럼 터뜨리는 낭만주의 시대가 도래하자 ‘꽃샘추위’가 심술을 부렸던 것이다.

이단자 취급을 받던 그의 개성적인 영혼을 구해낸 이가 바로 ‘저주받은 시인’ 보들레르(1821~1867)였다. 아버지의 막대한 유산을 아낌없이 탕진하고 금지산자 선고를 받은 희대의 열혈남아, 부르주아들이 만들어놓은 자유의 도시 파리를 산책하면서도 그들을 ‘교양 있는 속물’이라고 비아냥거리던 근대의 ‘문둥이’ 보들레르는 들라크로아의 작품을 보는 순간 반갑기 그지없었다.

보들레르는 문단에서 활동하기 이전부터 손을 댔던 미술평론에서 줄곧 들라크로아에게 존경과 애정의 마음을 표현했다. 그 글들을 모은 책이 바로 <화가와 시인>(유영에 옮김, 열화당)이다. 들라크로아를 주목한 첫 글의 첫 구절이 “들라크로아는 분명 고금을 통째로 가장 독창적인 화가”이다. “들라크로아의 상상력! 그의 상상력은 종교의 어려운 경지까지 기어오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늘



<알제리의 여인들> 1834년. (왼쪽) 들라크로아의 <녹색 조끼를 입은 자화상> 1837년경. 그는 자화상을 많이 그리지 않았다. 말라리아, 후두염, 기슴앓이 등 여러 질병을 두루 섭렵했던 자신의 육체에 대해 큰 불만을 품었기 때문이었다. 그의 외모에 대해 보들레르는 “눈 밑바닥에 일종의 채워지지 않는 갈망, 설명할 수 없는 항수, 추억과 회한 등을 지닌 브리안교의 어떤 왕자”라고 표현했다.



이 지옥과 전쟁과 올림푸스산과 관능과 함께 모두 이 화가에 속한다. 이로 인해 그는 시인의 자질을 갖춘 화가의 전형이다!”

시인이 화가를 주목한 점이 화가의 시인됨에 있다는 것에서 보들레르의 들라크로아론(論)은 ‘보들레르 미학의 보고서’라는 혐의를 지닌다. 훗날 대가의 반열에 오른 독창적인 화가를 진즉 알아본 점에서 보들레르 자신의 대가적 면모를 과시한 셈이며, 탁월한 예술가와 자신이 영혼의 일란성 쌍생아임을 강조한 형국이다.

부르주아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내면의 그림자를 완벽히 거둔다. 시인은 남의 얘기를 하면서도 결국 자기의 미학을 점검했다. 들라크로아는 1859년에 보들레르에게 쓴 편지에서 “당신이 쓰는 것에는 모두 당신이 있군요”라

고 간파했다.

자연과 우주는 한갓 사전(辭典)과 잡지와 사료(飼料)에 불과하다고 시인은 누누이 강조한다. 기존 예술은 그것들을 모방·재현하는데 그쳤다는 지적으로부터 출발하는 그들의 미학은 상상력에 기반을 둔 ‘창조’를 찬양했다. 그들에 따르면 고전주의 미술가들은 복사기에 불과했다. 내면성, 정신성, 무한예의 갈망, 즉 낭만성이야말로 새 시대 예술의 본질이라는 선언이었다.

‘겉’보다 ‘속’을 꿰뚫어보는 예언자로서의 예술가상(像)을 육화시킨 보들레르는 들라크로아의 작품평에서도 그의 입장을 설득시키고자 한다. “화가의 그림 중 가장 화려하고 아가자기한 <알제리의 여인들>에서조차” 그렇다. “보통 그는 일반 사람들의 관점으로 미녀

(美女)라고 정의되는 미녀들을 그리지 않는다. 그의 여인들 거의 모두는 병들어 있다. 그러나 그녀들은 어떤 내적(內的)인 미로 빛나고 있다. 그는 힘을 근육의 굵기로서가 아니라 신경의 긴장으로 표현한다. 그가 가장 잘 표현할 줄 아는 고통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진정 그의 그림의 놀라운 신비이지만, 특히 도덕적 고통이다. 이런 진실되고 심오한 우수가 서글픈 빛으로 빛나고 있다.”

흐느끼는 듯한 색채로써 근대인의 우울을 표현한 들라크로아에게서 ‘상상력’과 ‘근대성’이라는 두 가지 미학적 극점을 발견한 보들레르는 ‘새로운 떨림’을 감지하고픈 그의 시세계를 거침없이 개척해 나갔다. 시인은 화가를 구했고, 그 화가는 시인을 구했다.

<김중식>

#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진선출판사 전화 720-5990  
팩시밀리 739-2129

## 지혜로운 삶으로의 안내

###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지혜로운 자가 되고픈 이들에게

동서고금에 걸쳐 위대한 인물들의 지혜로운 언어를 모아, 올바른 삶의 지표를 제시하며 정신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책.

◆ 김창원 편 / 400쪽 / 값 5,800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삶인지 냉정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X세대니 감성세대니 말초신경을 자극하며 쏟아지는 상업문화의 범람 속에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르고 방황하는 우리들. 이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가치는 무엇인지, 올바른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한번쯤 진지하게 되짚어 보아야 할 때입니다.



## 깨어있는 삶으로의 안내

### 나는 세상의 중심 내가 변하면 세상도 변한다

깊은 이해와 사랑의 눈으로 인생을 통찰하고 간결하면서도 쉬운 언어로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제시한 깨달음의 책!

◆ 샤틀리 거웨인 저 / 김명렬 옮김 / 400쪽 / 값 5,800원

